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때로는 플롯보다 운율이 아름답다

- 소설과 영화의 미학적 = 형식(기교)
-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것 ⇒ 언어 : 일상 언어를 문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형식
- 영화를 영화이게 하는 것 ⇒ 이미지 : 일상 이미지를 영화적 이미지로 변형하는 형식
- ③ 「아이다호」와 「로마」는 평범한 풍경을 어떻게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는가?
- 서로에게 투입하는 내용과 형식의 역동적 상관성
- ‘낮설게 하기’와 ‘드러내기’ : 자동화된 형식과 인식의 갱신, 예술적 장치들의 의도적/장식적 노출(소격 효과)
- ③ 「익사일」 / 「유령」 / 「밀수」 : 과도한 장식과 인공미 드러내기, 스타일을 위한 스타일
- ③ 「너와 나」 :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세계의 애통한 형식
- ③ 「서치」 : 데스크탑 영화, SNS 시대의 영화 보기, 영화라는 형식 자체를 낮설게 하기
- ③ 「헤어질 결심」 : 언어의 다층적인 낮설게 하기 용법,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하기
- 서사물을 낮설게 하는 플롯
- 플롯(plot) : 어떻게 말하는가, 특수한 방식으로 사실과 행위들을 재구성하고 재배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
- 모티프 : 플롯의 최소 단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고리/동력/동기
- 한정 모티프 :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에 꼭 필요
- 자유 모티프 :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 않음, 미학적 발생
- 동적 모티프 : 상황의 변화 / 정적 모티프 : 상황 자체
- ③ 「자객 십은낭」 : 조용히 관찰하고 가만히 기척에 귀 기울이는 영화 보기
- 소설 문장의 미학적 : 지연효과, 미로(迷路)의 정원 산책, 정교하고 유니크한 전개
- ③ 홍상수 영화의 모티프 : 자유 모티프와 정적 모티프 우세, 인과관계 없는 인과관계, 지연과 유보, 반복과 차이의 미학, 서사적 질서의 해체
- ③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마주보는 두 세계의 틈, 완성 불가능해도 애뜻한 세계
- ③ 「검은 사제들」 : 의도적인 생략과 누락의 서사, 말해지지 않은 것 주목하기
- ③ <웃는 동안>의 자유 모티프, 소파를 옮기는 이야기, 지리멸렬의 플롯과 삶



-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는 동력 : 의도와 결과 사이의 ‘간극’
-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 : 인물이 어떤 행동을 취하자, 세계와 타인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 더 강한 의지와 힘으로 두 번째 행동을 취하자 위험이 발생한다 ⇒

주인공의 삶의 균형과 가치가 급변한다

㉔ 「극한직업」의 쓸데없이 잘 되는 치킨집, 「지옥만세」의 맥 빠진 복수, 의도의 불일치

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소동극

· 소설과 영화의 플롯을 진행하는 가장 큰 차이: 말하기와 보여주기

· 히치콕의 시한폭탄론: “관객은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터지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 영화의 핵심적 질문으로서의 시한폭탄

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학생들은 키팅 선생과 교장 선생 중 누구를 선택할까?

· 너무 많은 시한폭탄을 설치하면 떡밥(맥거핀)으로 전락

㉔ 「바닷마을 다이어리」: 소리높여 말하지 않고 가만히 보여주는 이야기

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인물의 동선과 이야기의 동선의 완벽한 일치

· 자동화와 낯설게 하기

· 페터 벡셀 <책상은 책상이다>: 예술은 자신만의 호명체계를 소유하는 일

· 모든 예술사는 결국 ‘자동화 → 낯설게 하기 → 자동화 → 낯설게 하기...’의 한없는 반복으로서의 형식 진화의 역사

· 지배소: 텍스트 내 다양한 형식 요소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부각되는 요소, 전경화되는 요소, 끊임없이 변화

㉔ 「내일을 위한 시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길복순」과 「발레리나」: ‘배우’라는 형식, 걷기와 달리기와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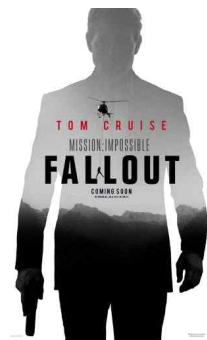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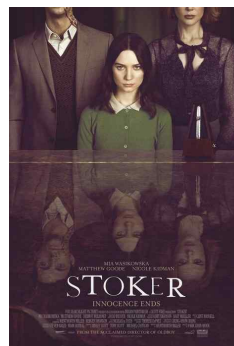
㉔ 「라라랜드」 「베이비 드라이버」: 음악이라는 형식을 위해 소모되는 영화

㉔ 왕가위 영화의 미학: 시대를 넘어 자동화되지 않는 탁월한 형식이란?

㉔ 「스토커」의 형식, 살인과 성장의 아름다운 이중주

㉔ 〈혜성〉: 서늘하고 송곳 같은 찌름의 문체

왕가위는 슬로모션의 도저한 속도 감각이나 스텝프린팅의 휘황한 이미지의 번짐을 넘어서서 미장센으로, 화면짜기의 아름다움과 편집의 파격을 보여준다. 「화양연화」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느린 시간의 유영을 보여주었다면, 「2046」의 모든 장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벌여놓을 것인가 하는 미학적 심리적인 ‘거리두기’의 과제로 모아진다. 바로 코앞에 위치한 두 사람을 잡을 때도 늘 벽이, 커튼이 가로막혀 있게 만드는 ‘가려진’, ‘숨겨진’, ‘잊혀진’ 방식으로 화면을 활용한다. 1/2 미장센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나머지 반쪽 화면은 대개 연인이자 타인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로 채워져 있다. 그토록 빈번히 등장하는 ‘반사’의 이미지들. 그것은 나르시시즘으로 채워진 공허한 고독의 성에 갇힌 왕가위의 주인공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다. 그들은 정말 화면상에서도 1/10만큼만 얼굴을 겹치고 나머지는 혼자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게다가 이 영화의 편집은 그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져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데도 등을 지고 서 있는 것 같다.



■ 윤성희 <웃는 동안> (『웃는 동안』, 문학과지성사, 2011)

영재가 마지막 국물까지 마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성민은 영재에게 나의 죽음을 알렸다. “그 의사 새끼가 6개월은 산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의사에게 어떤 복수를 해줄까 궁리 중이다) 영재가 들고 있던 냄비를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성민은 바닥에 던진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렇게 던질 거였잖아.” 영재와 성민은 민기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도 택시를 탔다. 2,800원이 나왔는데 성민은 5,000원을 내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았다. 민기는 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사흘째다.” 민기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아예 침낭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영재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민기야, 나 화장실 가고 싶다.” 한참 후에 민기가 대답했다. “왔어? 화장실은 안방에도 하나 더 있어.” “나도 왔어.” 성민이도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둘은 민기에게 혹시 변기에 앉아 있냐고 물었다. (똥 누는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모른다고 영재가 말했다.) 민기는 아니라고 했다. 성민이와 영재가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얼른 나와. 장례식장에 가야 해.”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써?” “응.”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너 우니?” “아니.” 민기가 대답했다. “그냥 세수하는 거야. 걱정 마.”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녀석들은 백화점에 들렀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네가 살아 있으면 100만 원씩 줄게.” 그때 나는 내기에서 이길 것 같다며 웃었다. 친구들은 내게 적금 통장을 보여주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붓는 적금 통장이었다. 그 적금을 녀석들은 아직 한 번 밖에 붓지 못했다. “그전에 내가 죽으면 멋진 양복을 입고 와. 선글라스도 끼고.” 나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검은색 양복을 세 벌 샀다. 키가 큰 영재는 양복을 입으니 모델처럼 보였다. 신발이 등산화라 문제였지만, “넌 이 나이 되도록 구두 한 켤레가 없냐!” 작년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나온 민기가 말했다. “넌 살이나 빼라.” 성민이가 민기의 배를 손으로 톡 쳤다. 똑같은 와이셔츠를 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선글라스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를 했다. (사, 사란 말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난 선글라스는 도수가 안 맞아서 못 써.”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그럴 거야.” “솔직히 난 돈이 없어.” 치사하게, 녀석들은, 선글라스를 생략하기로 했다.

녀석들은 서로 소파를 갖겠다고 싸웠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성민의 말에 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혀 우리답지 않은 일이었다. “어제 뭐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한 사람이 갖게.” 영재가 말하자 민기가 영재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 순간 나도 같이 때렸다. “이 바보야. 어제 장례식장에 있었잖아.” 친구들을 보고 있자 누가 먼저 군대를 갈 것인지 내기를 하던 시절이 생각났다……(중략)……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다 말고 민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이 갖기로 하자.” 녀석들은 자기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였는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우선 영재의 이야기.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야. 추석날 보름달을 보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동네에는 가로등이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그 가로등을 모두 세어봤지. 사흘이 걸렸어.” 다음은 민기가 말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민기의 말에 모두들 우~ 하고 야유를 보냈다. “그런 말은 50대가 되면 하자.” 영재가 말했다. “그럼 난 조금 이따 할게.” 민기는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척했다. 성민은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때 도보 여행을 갔던 거. 반찬 투정을 절대 하지 않는 거. 외박을 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빼고 난

늘 바보 같아.”

가파른 계단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었다. 올라갈 때 부딪혔던 난간에 다시 한 번 소파를 부딪쳤다. 소파 다리에 깊게 흠집이 났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삼각 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먹으며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만났다. 초등학생이 물었다. “그 소파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린 소파 수리공이야.” 그러자 초등학생이 김밥을 찢다 말고 삼키고는 반갑다고 말했다. 아이는 3대째 소파를 만들고 있는 집의 장남이었다. 녀석들은 아이를 소파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교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네 반에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기 부끄럽다며, 아이는 정중히 거절했다. “학교까지 온 김에 내기 한판.” 녀석들은 소파를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내려놓았다. 성민이 농구 골대 아래에 버려진 바람 빠진 농구공을 집어 들었다. “한 사람 앞에 열 번씩 던지는 거다.” 민기는 한 골도 못 넣었다. 영재가 세 골. 성민이 두 골. 셋이 농구를 하는 동안 잠자리가 날아와 소파에 앉았다. “가을도 거의 지났는데 웬 잠자리지.” 민기가 소파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와 손을 뻗었다. 잠자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녀석이 온 건가?” “나비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잠자리는 처음 들어봐.” 영재와 성민이 운동장 바닥에 앉아 턱을 껴 잠자리를 바라보았다. (이 바보들아. 나는 혀를 내밀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잠자리가 날아갔다. 셋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녀석들은 소파를 들고 다시 길을 걸었다.

녀석들은 잡채와 동태전과 고추전과 고사리무침을 먹었다. “우리 다시 식당 차려볼까?” 젓가락을 두고 손으로 동태전을 집어 먹던 민기가 말했다. 영재가 당면 한 가닥을 들어서 민기의 얼굴에 던졌다. “같이 망하기 싫어.” 당면이 민기의 얼굴에 붙어버렸다. 성민이 낄낄대며 웃었다. 영재가 성민의 얼굴로도 당면을 던졌다. 성민은 당면을 피했다. (당면은 성민의 옆에서 있던 내 몸을 통과한 뒤에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민도 당면 한 가닥을 집어 영재에게 던졌다. 민기가 두 친구의 얼굴로 동태전을 던졌다. 영재와 성민이 동시에 민기에게 고사리무침을 던졌다. 음식들이 소파 위로 떨어졌다. 성민이 던진 시금치가 민기의 인중에 붙었다. “수염 같다.” 민기가 시금치를 떼어 입에 넣었다. “수염 맛이 시금치 맛하고 똑같아.” 민기의 말에 녀석들이 웃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두 손을 배꼽에 대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마치 처음 웃어보는 사람처럼 웃었다. 웃는 동안 녀석들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 민기는 15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살이 빠져 있었다. 수염을 길렀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민기의 웃음 소리가 더 커졌다. 한적한 국도 변에서 민기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바람 빠진 타이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기는 그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평화로운 날들이야,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민기는 생각했다. 영재는 하루에 알약을 열다섯 개씩 먹어야 하는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시험공부를 하도 많이 했더니 상식 백과사전을 거의 통째로 외울 지경이 되었고,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 퀴즈 왕이 되었다. 상금이 4,500만 원이었다. 성민은 눈을 감고 웃다가 나를 만났다. “잘 있었니?” “응, 잘 있었어.” 우리는 인사를 했다. 나는 성민에게 소파를 잘 간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성민을 하나도 닮지 않은 딸이 소파에 오줌을 싸기도 했고, 화가 난 부인이 소파 다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 술에 취한 성민이 소파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런데 우린 어떻게 만난 거야?” 성민이 내게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너도 죽었거든.” 자신이 마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도 녀석들을 따라 웃어보았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잠깐 여행을 갔다 왔다. 세

상에. 거기에서 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소파를 훔치는 네 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웃음을 그친 녀석들은 조금 전에 자신들이 왜 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웃고 난 후에 녀석들은 이런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공중 부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 리 차일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뉴욕 미스터리』, 북로드, 2016)

R선을 타고 23번가에서 내린 잭 리처는 제일 가까운 계단이 폴리스라인으로 막혀 있음을 발견했다.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테이프가 양쪽 난간 사이에 가로질러 묶인 채 지하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폴리스라인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었는데, 어차피 리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고 싶었다. 비록 나가기 위해서는 계단에 들어서야 했지만 말이다. 언어적으로 꽤나 복잡한 문제다. 그런 면에서 그는 경찰들을 동정했다. 그들에게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각각의 테이프가 없다. 예컨대, ‘폴리스라인 나갈 목적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같은.

그래서 리처는 돌아서서 플랫폼 절반가량을 걸어 다음 계단으로 향했다. 여기도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폴리스라인 들어오지 마시오.’ 떠난 기차가 남긴 기류에 약하게 퍼덕거리는 파란색과 흰색의 테이프.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첫 번째 계단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다거나, 계단 금속 부분이 휘어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문제. 하지만 계단 둘 다라면, 아니다. 양쪽이 한꺼번에 그럴 리는 없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위쪽의 인도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한 블록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교통사고, 버스 사고가 났을까? 아니면 고층 건물에서의 투신자살? 차량 충격이나 폭탄 테러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인도가 온통 피에 젖고 시체들이 흐트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자동차 부품이. 또는 두 가지 다.

리처는 플랫폼이던 빌딩을 쳐다보았다. 좁은 삼각형 모양, 뾰족한 앞부분. 가느다란 썸기나 얇게 자른 케이크 조각 같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뱃머리에 제일 가까워 보였다.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원양선. 그리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 1층 앞쪽에 달린 유리 별관이 그런 효과를 망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다. 그건 마치 초대형 유조선 앞에 달린, 적재량이 적을 때만 물 위로 드러나는 돌출부 같았다.

이제 사람이 보였다. 유리 별관의 창문 너머 저편에. 여자였다. 그녀는 5번 애비뉴 인도에서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짙은 색의 바지와 반팔 셔츠 차림이었다. 여자는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휴대폰일까? 어쩌면 글록 19 권총일 수도 있다.

리처는 지하철역 난간에서 떨어져 길을 건넜다. 엄밀히 따지자면 신호 위반이었지만, 차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유명 도시를 걷는 기분이었다. 지구 최후의 인간이 된 기분. 5번 애비뉴에 있는 여자를 제외하면.

리처는 말했다. “난 에드워드 호퍼가 <나이트호크>를 여기서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그림이죠. 상당히 유명한. 밤늦은 시간, 식당 창문 너머로 안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들여

다보는 그림.”

“나이트호크라는 식당은 들어본 적 없는데요, 이 근처에선.”

“나이트호크는 밤을 새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식당 이름은 펠리르고.”

“무슨 이름이건 간에, 여기 식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식당은 없었을 겁니다.”

“방금 식당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난 호퍼가 이 장소를 보고 머릿속에서 식당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은 정확히 똑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것 같군요. 세 사람이 있는 거, 맞죠?”

“카운터 직원도 있죠. 몸을 숙이고 카운터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뒤로는 업소용 커피포트가 둘 있고.”

“커플이 있는데, 가깝긴 하지만 딱 붙어 있진 않아 서로 접촉은 없죠. 혼자 있는 외로운 남자도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고, 모자도 썼고.”

“남자들은 다 모자를 쓰고 있죠.”

“여자는 빨간머리예요. 슬퍼 보이고. 내가 봤던 중에 제일 외로운 그림이었어요.”

리처는 통유리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탐조등 같은 불빛 때문에 어두운 길거리에 사정없이 드러난 사람들을 상상하기란 아주 쉬웠다. 다만 지금 거리는 텅 비어 있어서 그들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림 속에서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럼 요원은 빨간머리 여자로군요.”

“네?”

“나는 등을 돌린 채 혼자 앉아 있는 남자고.”

“무슨 뜻이죠?”

“나는 산책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대로. 요원은 여기 그대로 있을 거고요. 아주 현명한 전략적 행동이죠.”

그는 그녀에게 반대할 짬도 주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가버렸다. 그는 유리 별관의 꼭짓점을 돌아 교차로 중심을 대각선으로 빠르게 가로질렀다. 인도 경계석이나 페인트 선에서도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빨간 신호도 무시하고,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마침내 공원 남서쪽 문을 지나 안에 들어섰다. 앞쪽에는 물 없는 분수와 문 닫은 햄버거 판매대가 있었다. 왼쪽으로 꺾으니 커다란 타원형 달리기 트랙처럼 생긴 큰길이 나왔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리처는 말했다. “어쩌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치스러울지도, 경찰 손을 빌려 자살하고 싶을지도.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 오늘 치 선행은 당신이 가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되겠지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럼 가보시죠.”

“정말로요?”

“차마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왜 그랬던 겁니까?”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현장 총책임자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까?”

“중요한 건 아무것도요. 그들에게 있어 최우선 사항은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정보 접근권이나 권한이, 내가 저쪽에 뭘 말했는지는 이미 알 겁니다.”

“뭔가 덧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없고?”

“하나도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연락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요.” 리처는 말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는 벽에서 몸을 떼어 북쪽으로 매디슨 애비뉴를 걸으며, 모자를 쓰고 식당 카운터에 앉아 팔꿈치를 기대고, 이미 오래된 비밀로 가득한 삶에 새로이 생긴 비밀을 곱씹는 자신을 상상했다.



■ 제임스 셸터 〈해성〉 (『어젯밤』, 마음산책, 2010)

필립은 6월 어느 날 아델과 결혼했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다가 나중에 해가 나왔다. 아델은 오래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흰 색을 입었다. 굵은 하얀 구두에 엉덩이가 달라붙는 긴 하얀 치마, 얇게 비치는 흰 블라우스는 입고 그 안엔 흰 브래지어를 했다. 목에는 담수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결혼식은 그녀의 집에서 했다. 이혼하면서 받은 집이었다. 우정을 굳게 믿는 그녀였고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다.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 아델은, 그녀는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립,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당신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뒤에는 들러리로 아델의 아들이 약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팬티에

는 ‘빌려온 것’으로 작은 은화 같은 것을 달았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하고 갔던 성 크리스토퍼 훈장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치마의 허리춤을 말아 내려 사람들에게 훈장을 보여 주었다. 문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한 노파가 사람들이 정원 구경을 하는 줄 알고 서 있었다. 지팡이엔 작은 개를 맨 목줄이 걸려 있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살이 찌기 시작했다. 아직 얼굴은 예뻐지만 얼굴선도 두둑해졌다. 하지만 스물다섯 살 때 하던 대로 술잔을 들고 침대에 들어섰다. 필은 파자마 위에 캐주얼 양복 재킷을 입고 앉아 책을 읽었다. 그 차림으로 아침에 뒤뜰을 걷기도 했다. 그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그를 쳐다봤다.

-그거 알아요?

-뭬?

-난 열다섯 살 때부터 섹스라이프가 괜찮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올려다봤다.

-난 그렇게 일찍 시작하진 않았었는데, 그가 털어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은 충고지만 좀 늦었지.

-우리가 처음 했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지.

-거의 멈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억해요?

-그럼 이젠 평균이 됐겠네.

-참, 대단하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잠이 든 후 영화를 봤다. 스타들도 늙어가고 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다르지. 그들은 이미 엄청난 보상을 받았으니까. 아델은 영화를 보며 생각했다. 젊었을 때, 그때 가진 것이 많았다. 그녀는 스타가 될 수도 있었다.

필이 뭘 알겠나, 그는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은 행복했을 거 아니요? 필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 삶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한순간 모든 게 불행으로 바뀔 순 없다고요.

-그 여잔 내 남편을 뺏어갔어요. 남편이 맹세한 모든 걸 가져갔다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합창하듯 사람들이 반발했다. 제단에서 목이 잘릴 거위들처럼 목을 쭉 빼고 씹씩거렸다. 아델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매일이죠, 그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릴 듯 말 듯 했다. 이성의 목소리 혹은 적어도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난 딴 여자의 남자는 손대지 않을 거 같아요. 그제야 아델이 한 마디 했다. 결코, 취했을 때 피곤해 보이는 그 얼굴이었다. 모든 걸 안다는 듯 피곤한 기색. 그리고 난 맹세를 어기는 일 따윈 안 할 거예요.

-당신은 안 그럴 거야. 필이 말했다.

-스무 살짜리에게 빠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아델은 그 가정교사 얘기를 꺼냈다. 그때 집에 오던 여자, 옷 밖으로 젊음이 배어 나오던 여자.

-당신은 안 그러겠지.

-저 사람은 와이프를 떠났어요. 아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 가정교사가 콜걸 비슷한 뭐였더라고요. 다른 남자와 자는 걸 저 사람이 발견했어요.

-정말이세요? 모리세이가 물었다.

그는 식탁 위로 몸을 구부려 턱을 손에 괴었다.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녁을 함께 먹고 카드를 몇 번 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 언제나 놀라게 된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상관없어요. 필이 우물거렸다.

-그런데 이 바보가 그래도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델이 계속했다. 그때 이 사람이 일하던 멕시코시티로 그 여자가 갔고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아델. 그가 말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차서 아무 말도 못할 때처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나요? 모리세이가 가볍게 물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말예요. 아델이 말했다.

아무도 모를 터였다. 이 사람들은 멕시코시티가 어땠는지, 그 황홀하던 첫 1년이 어땠는지, 주말에 쿠에르나바카를 지나 해안을 따라 내려가던 드라이브가 어땠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태양 아래 빛나던 그녀의 다리와 팔, 그 옆에서 느끼던 현기증, 봐서는 안 되는 사진이나 굉장한 예술 앞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싶은 느낌. 멕시코시티에서 2년 동안은 파경이란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거의 신앙에 가까웠다. 고개를 숙이면 드러나던 가름한 목덜미가 눈에 선했다. 매끈한 등을 따라 진주처럼 살며시 솟아오른 등뼈의 흔적도.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눈에 선했다. 과거의 자기 자신.

-연락해요. 그가 시인했다.

-필립은 자기가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버그도프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쇼윈도에 맘에 드는 초록색 코트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코트를 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다른 곳에서 처음 코트보다 더 좋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샀어요. 나중에 옷장 안엔 초록색 코트가 네 벌이나 걸려 있게 됐죠. 욕망을 자제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뭘 봐요? 그녀가 결국 말을 건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혜성. 그가 말했다. 신문에서 그랬어. 오늘 밤 제일 잘 보일 거라고.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안 보여?

-어디 있어요?

-바로 저기 있잖아. 그가 손으로 가리켰다. 특별하게 생긴 건 아냐. 그냥 작은 별 같아. 저기 묘성 옆에 있는 거. 그는 별자리를 모조리 알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던 해안선 위로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별들을 보아온 그였다.

-들어가요. 내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거의 위로하듯 말했지만 가까이 다가간 않았다.

-내일은 안 보일 거야. 한 번뿐이야.

-그게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어서요, 늦었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집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2층과 아래층 모두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아델을 돌아보았다. 잔디밭을 건너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빛의 반경 속으로, 다음은 더 환한 곳으로 들어서더니, 부엌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녀는 발을 헛디뎠다.